

## 15세기이전 우리 나라 동아시아언어관계자들과 그들의 활동

안 종 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인민입니다. 우리 인민의 력사는 자연과 사회의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빛나는 투쟁의 력사이며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담긴 수많은 문화적재보를 창조해온 자랑스러운 창조의 력사였습니다.》  
(《김정일전집》 제13권 375페이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우리 인민은 자연과 사회의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오랜 투쟁과정에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담긴 문화적재부들을 수많은 창조하여왔다.

우리 인민은 일찍부터 주변나라들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적인 교류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 해당 나라들의 언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15세기이전까지의 중세 동아시아언어분야에 종사한 관계자들과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15세기이전 우리 나라에서의 동아시아언어관계자들에 대하여서는 주로 《삼국유사》, 《고려사》를 비롯한 중세의 문헌기록을 통하여 찾아볼수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원효가 한자반절법에 상당히 정통하고있었다는데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 외국어학발전에 기여한 학자들이 남긴 전문적인 언어학도서들에 대하여서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고려사》에 기록된 단편적인 자료들에는 이 시기 한어, 몽골어, 녀진어 등의 언어에 정통하여 대외관계와 언어학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일부 소개되고있다.

자료들에서 그들은 주로 통사의 신분으로 많이 소개되고있는데 그들을 어종별로 구분하여보면 한어통사, 몽골어통사, 녀진어통사들로 나누어진다.

15세기이전 동아시아언어관계자들과 그들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한어 관계자들과 그들의 활동이다.

력사기록을 분석해보면 우리 나라에서 한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이른 시기부터 진행되었으며 세나라시기부터는 그것이 더욱 본격화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우리 나라의 역관제도 역시 력사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면 세나라시기부터 실시된것으로서 매우 오래다고 말할수 있다.

《삼국사기》(권50 열전10 궁예조)에는 《... 또 사대를 설치하여 여러 나라 언어학습을 담당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기록은 《삼국사기》(권40 잡지9 직관조)에도 있으며 고려시기에도 이러한 기관이 설치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시기에 이르러 한어연구는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통문관, 한어도감(후에 한문

도감) 등에서 진행되어왔으며 고려말기에 전문적인 외국어연구기관으로서의 사역원이 설치되면서부터 한어연구와 통역원양성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는 체계가 세워지게 되었다.

역어는 외국어 또는 외국어통역담당자를 의미하는 말로서 고려시기에도 이 말이 가끔 쓰이고있었다.

《고려사》(권9 세가, 권9 문종 27년 5월 정미조)에는 《장교와 역어 등이 오랑캐옷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사》(권21 세가, 권21 신종 5년 정사조)에는 《리부상서인 최선이 승경원의 승지로서 레빈성에 자리를 잡고 역어를 시험을 보아서 뽑았다.》라는 기록이 있다.

위의 기록을 통하여 경효왕 2(1276)년에 통문관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통역을 담당한 통사가 있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통례문은 조회의례를 관할하였는데 목종시기에 ... 통사사인 4명》(《고려사》 권76 지, 권30))

《동궁관 현종 13년 태자를 세워 사보와 관속을 설치하고 ... 통사사인 2명》(《고려사》 권77 지, 권31)

《역어 각각 5명이 단강, 적구, 후석 등에 이르러》(《고려사》 권81 지, 권35)

이 자료들에 나오는 《통사》, 《역어》 등을 통하여 통문관이 설치되기 이전에도 한어에 대한 연구와 학습이 진행되었다는것을 알수 있으며 한어역관들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려사》(권101 렬전14)에 김태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김태서는 경주사람이며 문하시랑 평장사 김봉모의 아들이었다. 이 기록에서는 김봉모에 대하여 《김봉모는 용모가 아름다웠으며 호명되어 항상 동각에 있었다. 신종때에 추밀부사로 임명되고 벼슬이 여러번 올라 문하시랑 평장사에 이르렀으며 죽었을 때에는 왕이 3일간 조회를 정지하였으며 정평이라는 시호를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녀진어와 한어에 능하기때문에 외국사신의 안내를 도맡아하였다고 기록하고있다.

한어통사들에 대하여서는 이밖에도 조인규, 한악, 익선, 최안도, 학선 등이 나오는데 이들은 한어뿐아니라 몽골어에도 익숙한 통사들이었다.

15세기이전 동아시아언어관계자들과 그들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몽골어관계자들과 그들의 활동이다.

우리 나라에서 몽골어에 대한 연구는 몽골족이 원나라를 세운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고려사》(권31 경효왕 을미 21년 춘정원 임신)의 기록에 의하면 경효왕 21(1295)년에 원나라에서 몽골어를 배워주는 교수를 고려에 파견한 일이 있고 강준재, 조인규, 강운소, 정자전, 원경, 류청신, 배빈, 학선, 한악, 최안도, 우정 등과 같이 이름난 몽골어전문가들이 있었다고 한다.

강준재는 《고려사》(권75 지29)의 원종 원년 4월에 왕이 명령하기를 《산관 강준재는 본래 가정형편이 한심하여 제한을 받아 7품관에 있으나 몽골말을 잘하니 마땅히 5품까지 올릴것이다.》라고 한 기록을 통하여 그가 비록 출신은 낮았지만 몽골어에 능한것으로 하여 품계가 상당히 올랐다는것과 이 시기 몽골어가 매우 중요시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조인규는 3년동안 몽골어를 열심히 공부한 결과 명성을 얻게 되고 제교(교위급의 관직)로 임명되었으며 여러번 조동되어 장군으로 승진하였다. 복잡한 외교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한것으로 하여 그는 사신으로 몽골에 30여차례나 래왕하는 동안에 경효왕, 선효왕의 신임을 얻어 벼슬은 밀직사사, 첨의찬성사를 거쳐 시중으로까지 되었다.

강운소에 대하여 《고려사》(권123 렬전36)에는 《강운소는 그 근본이 신안공의 노비이며 몽골말을 알았고 간사한 지혜가 있어 원종의 총애를 얻었다. 여러차례 원나라로 심부름을 갔다온 공으로 벼슬길이 허가되어 여러 관직을 거쳐서 장군으로 되었다. …경효왕 원년에 군부판서, 응양군 상장군벼슬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정자전은 《고려사》(권123 렬전36)에 《정자전은 통역원인데 령광군 압해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증으로 되었다가 다시 속인으로 돌아와서 역어도감 록사로 채용된것이 계기로 되어 몽골말을 습득하여 여러차례 원나라에 왕래했으며 그 공로로 벼슬이 올라서 지첨의부사까지 지냈다.》라는 기록에 있는바와 같이 몽골어통역이었다.

원경에 대하여서는 《고려사》(권124 렬전37)에 《원경은 어려서부터 몽골어를 배웠으며 루차 …원나라에 들어갔던바 원나라 세조가 항상 <납린합랄>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그가 응대에 자상하고 민첩하여 동작이 민활하였으므로 <납린>이라 하고 수염이 검고도 아름다웠으므로 <합랄>이라 하였던것이다.》라고 기록하고있다.

류청신은 어려서부터 사람이 트이고 담기가 있었으며 몽골어를 습득하여 여러차례 원나라로 왕의 사명을 받들고 왕래하면서 응대를 능숙하게 한데로부터 경효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아 랑장으로까지 되었다.

《고려사》(권125 렬전38)에는 《…경효왕이 …그때 교서를 내려 이르기를 <류청신은 조인규를 따라서 진력하여 공을 세웠다. 비록 그 가세를 봐서는 5품으로 제한하여야 할것이 나 그 본인에게는 3품까지 허가한다.》라고 했으며 또 고이 부곡을 고흥현으로 승격시켰다.》라는 기록이 있다.

배빈에 대하여 《고려사》(권125 렬전38)에는 《배빈이란자는 몽골어에 능숙하며 성질이 미치광이라 루차 재상 류비에게 말을 불순하게 한 일도 있었는데 왕유소가 체포되었을 때 시종들이 배빈도 수감하였다. 전왕이 말하기를 <왕유소 등이 나를 참소할 때 바로 이사람 입을 통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고 사람을 시켜서 혹독히 매질하니 배빈이 몽골어로 애걸하였다. 이에 전왕이 좌우 시종들에게 말하기를 <저놈이 통역을 잘해.》하고는 용서해주었다.》라고 기록하고있다.

학선에 대하여서는 《고려사》(권36 세가36)의 현효왕 4(1343)년 여름 4월 경자일의 기록에 《왕이 중 학선을 옥에 가두었다. 학선은 거문고타기와 그림그리기를 잘하였고 의술에도 밝았으며 또 한어와 몽골어도 통하였으므로 왕이 존경하고 소중히 여겨 스승으로 존칭하였더니 궁전안에 들어와도 절하지 않기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였다. 그런데다가 이때에 거짓말로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죄수를 놓아주었기때문에 왕이 노하여 감찰사에 명령하고 그를 국문하고 제주도로 귀양보냈다.》라고 되어있다.

한악은 간의대부 한강의 아들로써 《고려사》(권107 렬전20)에는 《한악은 선효왕때에 우대언으로 임명되었다. 의효왕이 즉위하자 선부 전서 지밀직사사의 관직을 그에게 주었다. …그는 성품이 근면하고 신중하였고 능력과 도량이 있었으며 매번 무슨 일을 할 때면 세번 생각해보고서야 실지행동에 옮겼으며 몽골어와 한어를 상당히 잘 알고있었다.》라고 기록

되어있다.

최안도는 《고려사》(권124 렬전37)에 《안도는 선효왕을 연경 행저에서 섬겼으며 이로 하여 몽골어와 한어에 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있는바와 같이 국가에서 설치한 역학기관에서 외국어를 습득한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직접 외국어를 습득하였다.

우정은 《고려사》(권130 렬전43)에 《우정은 진주사람이다. 원종조에서 통역으로서 여러 관직을 거쳐 랑장 벼슬까지 승진되었는데 몽골에 사신으로 …갔다가》라는 기록을 통하여 몽골어분야에 종사한 통사였다는것을 알수 있으며 같은 항에 《통역 리송무》등이라는 표현이 있는것으로 보아 리송무도 몽골어를 소유하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밖에 조이, 권현복, 윤지표와 같은 몽골어통사자료들도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몽골어관계자들의 활동에 비해 학술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15세기이전 동아시아언어관계자들과 그들의 활동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녀진어관계자들과 그들의 활동이다.

녀진어관계자들에 대하여 《고려사》와 《동국통감》에서는 김택과 서공, 재언 등에 대하여 통사, 역자의 신분으로 소개하고있다.

《고려사》(권15 세가15) 인종 6(1128)년 11월에는 《기축일에 공부 원외랑 유원서를 금나라에 보내여 생일을 축하하게 하고 합문통사 김택은 신년을 축하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녀진어통사 김택을 소개하고있으며 같은 책(권17 세가17) 인종 23(1145)년의 기록에는 《3월 경술일에 합문통사사인 서공을 금나라 동경에 파견하였다.》라고 하면서 녀진어통사 서공을 소개하고있다.

한편 《동국통감》(권19)의 《정해 2년 12월 병신일에 좌군이 오른쪽 성아래에 이르러 녀진인들이 모여있는것을 보고 역자 재언을 보내여 타일러 항복하게 하니 녀진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한번 싸워 승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찌 항복하겠는가.>…》라는 기록을 통하여 재언이 녀진어통역이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밖에 한어에 능숙한 김봉모가 녀진어에도 정통했었다는 기록(《고려사》 권101 렬전14)도 있다.

《고려사》를 비롯한 력사자료들에는 15세기이전의 한어, 몽골어, 녀진어관계자들에 대하여서는 소개되고있지만 왜어관계자들에 대한 소개자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신라에서 진평왕 43(621)년에 외국인을 접대하는 령객전과 왜인을 접대하는 왜전을 두었다가 경덕왕때 사빈부로, 혜경왕때 이것을 다시 령객부로 바꾸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있을뿐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보면 15세기이전 즉 고려시기에 동아시아언어관계자로서는 몽골어통사가 특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몽골어관계자들과 녀진어관계자들이 한어도 겸하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우리는 동아시아언어관계자들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더욱 빛내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